

간호사업의 문제점과 미래상

<연세간호대학 부교수> 전 산 초

I. 서 언

오늘날 제 2차대전 이후 국가, 사회, 역사, 문화, 학문, 모든 영역에 있어서 막은 것으로부터 새로운 방향으로 경진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인간활동의 각 분야에 있어서도 그 양상이 복잡해지면서 여기서 파생되는 문제가 많아지게 되고, 따라서 문제해결도 대단히 어렵울 뿐만 아니라 그 문제 해결방법도 여러가지 형태이며 문제 해결 여하에 따라 그 분야의 미래의 양상이 변천되어 가고 있음을 봅니다.

여기 간호사업의 미래를 예진하고 문제점을 논하는데 있어 세가지 분야 즉 문제의 핵심이 되는 인간, 학문, 사회참여 등으로 나누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II. 인간(간호원)

Platon은 그의 정치철학에서 인간문제를 그 출발점을 삼았습니다. 즉 理想의人間을 만들어라 그리하면 이상적 국가가 생겨질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던 한사회에 있어서 이렇게 根本적이고 또 質的인 人間問題란 어떤 것인가? 한人間이 갖는 그 지식의 多寡와 정도, 또 감정의 안정과 순화 여부, 그리고 욕구의 우아와 비열 등이 바로 이 인간문제의 내용입니다. 즉 알고 느끼고 소망하는 것 자체가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그 나라」는 「그 마음」 「그 사람」에서부터 이룩되는 것이라고 해야겠습니다.¹⁾

이제 간호사업의 미래상을 어느 정도 정확하게 내다보는 길이 있다고 하면 이것은 지금 말

한 그대로 우선 우리 간호원의 마음 속에 무엇이 들어 있는가 또 이렇게 들어 있는 그 내용이 세월이 흘러가는데 따라서 어떻게 변해 가고 있는가를 살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시 환언하면 간호원 각자가(한 인간이) 가진 지식이 어느 정도인지,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는지, 그들의 감정이 안정되고 순화되어 있는지 또한 그들의 욕구, 혹은 가치관이 어디 있는지 우아한지 혹은 비열한지 즉 우리 간호원 각자가 알고 느끼고 바라는 바가 무엇인지 이것에 따라 미래상이 그려진다는 것입니다. 간호원의 마음 속에 간직한 그 내용이 즉 그 사람을 형성하고 그 사람이 간호사업의 미래상을 나타내 주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간호사업의 초창기에는 기독교적 박애정신으로 시작되었고 따라서 간호사업은 희생과 봉사라야 하겠으며 그러기 때문에 특수분야의 봉사사업으로서 인간사회와는 멀리 떨어져 있어 마치 탄나라의 인간활동인양 되어 있었었습니다. 그 이후에도 이 간호개념을 중시삼아 봉사와 희생정신의 강약이 오르내리면서 계속 지내 오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2차대전 후 세계의 간호사업이 발전하면서 우리 한국의 사업에도 진전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제 2차대전 전후를 경계로 하여 간호원의 마음 속의 내용이 달라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지금으로부터 약 15년전에 대학과정이 생기면서부터 간호하는 사람의 마음 속에 이런 생각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질병이나 치료를 본위로 한 간호만으로는 만족한 간호를 했다고 자처할 수 없다고 생

각된 까닭에 간호는 환자의 요구에 기초를 둔 환자중심의 것이어야 하겠으며 간호계획을 세워 되 당면한 문제뿐만 아니라 장기적 계획을 세워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 주력하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이 분야는 보전간호의 영역에 속하는 것이라고도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환자의 신체적, 사회적, 심리적, 경제적, 교육적, 모든 문제를 규명하고 해결해 주자는 생각입니다. 즉 환자 중심의 간호이며 동시에 전인적적 간호를 해야 겠다고 생각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즉 사람을 이해하고 그와 더불어 가까이 사귀면서 문제를 발견하고 그 문제까지도 해결하므로 환자의 요구를 충족시켜 주겠다는 마음입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은 과연 이것을 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능력, 문제분석의 능력, 필요자료 수집의 능력, 논리적 결론을 결정하는 능력, 모든 필요한 지식의 원리나 이론을 이해하는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마음입니다.

이러한 마음을 간호원 각자가 지니고 있다면 간호사업의 미래상은 과연 소망이 있고, 다른 전문직업인과 어깨를 겨눌 수 있겠으며 본 뜻을 이룰 수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현실이 간호의 실상에 있어 문제입니다. 현하 우리나라의 간호사업은 실제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때 실질적 발전과 우리가 되고 싶어하는 소망의 미래상이 떠오르기 힘들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 중의 하나는 참된 학문세계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III. 학 문

이를 교육과 연구로 나누어 생각해 보았습니다.

1. 교육

미국의 교육학자 Ralph Tyler 는 Professional Education에 대하여 말하기를 “어떤 직업이나 이것이 Profession(전문직업)이 되려면 일상화된 기본조적이나 숙련보다는 주요원칙과 개념을 인위적으로 응용함으로써 달성할 수 있는 복잡한 책임 임무를 포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또 Ester Lucil Brown 은 말하기를 Professional Nurse의 넓은 시야는 고도의 교육에 의해서만 자라게 된다. 이 교육은 각각 독립되어 있는 교육이기는 하지만 서로 깊이 integrated된 두가지 방법이 있다. 첫째는 원리와 이론을 이해하는 능력을 부여하는 것이요, 둘째는 전문직 생활에 필요한 전문적 기술 훈련을 하는 종류의 것입니다. 단 이 훈련은 병원사회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사회의 넓은 분야에 걸친 간호사업이라야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리하여 오늘날 간호교육 또는 간호학문은 사회적 요구와 환자의 요구 즉 전인적적 간호를 하기 위해 교육은 고도로 개선되어야 하겠으며 차차 그러한 방향으로 변천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한 Professional education 또는 Profession으로서 독립된 학문의 분야를 지켜 오려고 할 때 여러가지 문제점이 여기 대두되는 것입니다.

간호교육의 문제로는 간호학과의 제도문제, 교과과정문제, 간호교육의 목적, 또는 원칙에 대한 문제, 교원의 자격문제 등이며

간호업무의 문제로는

간호원의 기능문제, 기술 및 능력 향상 방안 문제, 즉 Inservice Education 문제, 간호원 부족문제, 행정적 문제, 인사문제, 자격문제 등입니다.

2. 간호연구(Nursing Research)

간호 업무나 간호 교육의 문제에 대한 연구나 조사의 특징은 무엇인가? 하는 것 등의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상 모든 문제는 Nursing Research의 중요한 제목이 될 수 있는 문제이며 앞으로 간호사업에서 일어나는 복잡한 모든 문제는 Research를 통해 해결하는 방향을 모색함이 학문하는 정당한 길이며 또한 중요한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마치 대학의 function이 교육과 연구 두가지를 병행하게 되어 있듯이 간호연구는 간호학문하는 사람이나 기관에서 권장하고 추천하여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며 이것이 있으므로 바라는 바의 미래상을 볼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나라의 경우 대학과정이 생긴 이후 간호학이 학문으로서의 체제를 갖추기 시작했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닙니다.

대학원과정이 생기면서 비르소 우리나라의 nursing research의 역사도 시작되었다고 봅니다. 미국의 경우 1920년대부터 Nursing Research를 시작하여 그들이 당면하는 모든 문제 연구를 통하여 끈질기게 해결해 오고 있습니다.

Nursing Research는 특별한 문제나 문제들에 관련된 사실을 발견하고 밝혀내는 조직적이고 자세한 시도이며 그 목표를 과학적 지식 형성으로 삼았습니다.

과학적 방법, 과학적 태도는 research에 있어서 권장할만한 방향이며, 학문에 있어서 주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Nursing Research의 독립된 분야는 환자중심의 간호를 하는 까닭에 인간학적 위치에 놓이게 되므로 더욱 광범위합니다.

아직도 Nursing Research를 위한 장학금단체, 연구소 research를 위한 정규 간행물이 없으니 독립된 학문으로써 반신이 아직 자라지 못한 감이 납니다. 간호사업의 미래상은 Nursing Research를 얼마나 적절하고 과학적인 방법으로 하느냐에 따라 양상이 달라지리라고 생각합니다.

IV. 간호사업의 사회참여

간호사업은 그 성질상으로는 실제 활동 및 그 교육자체로 보아 사회와 깊이 결합되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고립되어 왔습니다. 심지어는 병원사회 내에서도 의료보건의사회 자체 내에서도 간호원이나 보건간호원은 자기네 전문분야 내에서도 사회참여를 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행정적으로나 학문적으로 모순된 일이며 개혁되기는 대학과정이 생기면서부터 시작된 것이라 하겠습니다. 이 사실은 간호사업과 사회와의 사이에 다리를 놓아주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과연 간호원으로 하여금 자신의 사회적 위치를 최선의 것으로 발견하는 계기가 되었

으며 그러므로 간호사상 중요한 사실입니다.

이 문제는 개인적 사회참여는 물론 또 학문적으로는 타학문과 즉 간호학 이외의 간호학과 관련된 의학, 사회학, 정치, 경제, 교육, 행정 등의 사회과학과 관련을 가지고 나아가야겠으며 사회가 요구하는 사회와 관련된 교육이라야겠습니다. 또한 나아가서 간호사업직업단체의 사회참여는 피차에 영향을 주고 받는 현상이 나타나게 마련입니다.

그러므로 사회적 변화와 발전도 결국은 간호사업에 변화와 영향을 미치게 마련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회 참여를 하는 때는 우리들 자자의 자격이 주요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Mantag는 「간호전문직의 개념은 하나의 연속체나 또는 Spectrum의 분광의 범위를 가진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이 개념이 내포하고 있는 뜻은 실습이나 간단한 일상화된 기술의 숙련에 구애됨이 없이 나아가서 환자의 문제를 과학적 원칙에 의하여 조정할 수 있는 전문적 책임을 뜻하는 것이며 나아가서는 앞으로 무한대한 발전의 세계를 향해 뻗어나갈 근본적 소질의 소유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 없이는 과연 사회참여에 서슴치 않고 타학문, 타 전문직과 어깨를 겨누게 될 수 있을 것인가? 시험단계에 있다고 보겠습니다. 과연 이 시험은 스스로 평가할 시기라고 하겠습니다.

V. 결 론

첫째는 이상적 사람이 이상적 국가를 형성하듯이 이상적 인간이 이상적 간호사업을 만드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상적 인간은 마음 속의 내용 여하에 따라 규정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간호학의 학문자체입니다. 학문을 교육과 research로 나누어 본다면

1. 간호교육은

① 그 기초교육은 모든 환자의 문제를 규정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교육 내용이라야 하겠고

② 문제를 해결하는 적절한 간호의 방법 (way) 과 기술을 합리성에 기초를 두고 선택하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라야 하겠으며

③ 모든 간호의 원리와 원칙을 실무에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키는데 요긴한 것이라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2. 간호연구는 : 모든 간호사업의 일어나는 문제점을 가장 정확한 과학적인 방법으로 연구 조사하여 해결하며 이것을 위한 부수조건, 연구비, 연구소, 연구지(誌), 연구하는 사람을 준비하여야겠다는 것이며, 학문의 기능, 즉 대학의 기능은 Education 과 Research 의 두가지 방향에서 진취되어야 하는 까닭입니다.

3. 실로 간호학문의 독립된 분야는 인간중심(환자중심)이기 때문에 인간학이라고 생각되며 넓은 시야에서 integrate 되어야겠다는 점을 강조 하였으며

셋째 간호사업의 사회참여는 학문자체로나 간호업무 본질로 보아 긴밀한 관련을 가지고 있으며 분리될 수 없습니다. 이에 개인적으로 학문적 및 직업적으로 사회참여를 강조했습니다.

그러므로 한국간호의 미래상은 이상과 같은

방향으로 정체함 없이 자라나는 과정의 미래상이라고 볼 때 한국의 간호사업은 환자중심(인간중심)의 것이라야 하겠으며, 그 학문은 인간학이라고 할 수 있는 간호학과 관련된 모든 사회과학과도 integrate 되어야 하겠으며, 또한 간호문제들은 과학적인 연구를 통해 해결방안이 강구되어야 하리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간호사업의 사회참여는 필연적인 것으로 강조하는 바입니다.

References

1. 장리옥 "한국의 미래상과 의학" 연세춘추, 제526호.
2. 전산호 "변천하는 사회와 현대간호의 경향" 대한간호 Vol. 7 No.6, pp. 12~20
3. Abdellah, Fay G, and Lavine, Eugene, *Better Patient Care Through Nursing Research* Macmillan Co. New York. 1965.
4. Lambertsen, E.C., *Education for Nursing Leadership*, J.B. Lippincott Co., Philadelphia, 1958.
5. Abdellah, Fay G., and Others *Patient-Centered Approaches to Nursing*, Macmillan Co. New York, 1960.

◇대한간호협회 서울시지부 이전◇

대한간호협회 회관 1층에서 접무해 오던 대한간호협회 서울시지부가 금번 신회관 건립을 위해 아래의 주소로 이전하였습니다.

